

런던 아이 -코로나 대처 한·영 문화 차이

팬데믹 못 막은 영국 '평정심 대응' ... 한국 '즉각 대응' 과 대비

(Keep Calm and Carry On)

김 불리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스포츠 에디터



'Keep Calm and Carry On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이 유명한 말은 최근 수십 년간 영국 최고의 수출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면 이 구절이 거의 모든 상품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스토이시즘(stoicism·금욕주의)이 영국인의 정신에 반영된 것을 잘 보여 준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면 결국 모든 게 괜찮아 진다는 의미다.

이런 정신 덕분에 영국은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공포와 좌절을 이겨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일명 '블리츠정신(Blitz Spirit)'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블리츠는 2차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을 '전격전(Blitz Krieg)'으로 폭격했을 때의 상황을 일컫는다. 8개월 정도 지속된 이 공습으로 약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런던의 60%가 파괴됐다.

영국은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극복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공포의 상황을 이겨 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어떤 나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조차도.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말이다.

존슨 총리 "전시 정부처럼 행동" 오판

'Keep Calm and Carry On'이란 문구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다. 런던 임페리얼전쟁박물관에 따르면 이 문구는 전쟁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한다. 그저 2001년 누군가가 이 문구를 다시 찾아내 마케팅 기회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30년대 영국 정부가 당시의 국가 정신을 반영해서 만든 정부 선전용 포스터에 쓰였던 것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 영국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블리츠를 이겨 낸 것이 절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동맹국과 함께 전쟁에서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영국은 당시 상황을 자제히 관찰하고 즉각 대처하며 블리츠를 극복했다. 공습 사이렌 울리는 소리, 한밤중에 지하병커로 뛰어 들었던 사람들, 낯선 시골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 불빛이 꺼져 있어 어두컴컴한 거리, 두꺼운 검정 커튼으로 닫힌 창문들 모두 런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영국인들이 스토이시즘으로 전쟁을 이겨 내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쟁 중 혹은 이후에 나타나는 진단되지



지난달 22일 대구 백합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거리를 두고 교실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차대전 후 위기 직면할 때마다 불굴의 '블리츠 정신' 되새기며 '냉정 유지하며 공포 극복' 강조

민족적 금욕주의 나쁘진 않지만 코로나 극복엔 애국심 무용지물 두려움과 정부 빠른 대처 더 중요

않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사실에서 보인다. 이를 알았던 영국정부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자신의 집이 폭격을 당해 없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잊고 삶을 살아가도록 장려하기 위해 블리츠정신을 고안한 것이었다.

블리츠정신은 오래된 영국인 특유의 불굴의 정신(British stiff upper lip)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 오래된 개념이 영국의 문화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영국 정부는 나라가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국민에게 블리츠정신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 국민에게 "우리는 전시 정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정부는 영국인의 침착하고 반응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본성이 바이러스에 의해 꺾일 수 없다고 말하며 애국심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려 했다. 우리가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며,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능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아무리 스토이시즘이 강하다 해도 바이러스보다 강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17일 존슨 총리가 정부가 전시정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 영국에는 이미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주일 후 그 수치는 1만 명이 넘었고 7월 초에는 무려 30만 명을 넘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블리츠 때의 추정 사망자 수인 4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이러한 민족적 스토이시즘의 근대적 토대가 그 바탕에 있던 아니든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항상 같은 방법으로 위기에 대응할 때 생긴다. 테러나 전쟁 상황에서 이런 영국의 문화는 확실한 강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방심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한 적이 없다"고 믿음으로써 영국 정부는 팬데믹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팬데믹 동안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길러진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일 수밖에 없다. 가만히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위험한 일인 것이다.

세계적인 의료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영국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200년 동안 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미국의 이런 문화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기술혁신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낼 때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전 세계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문화적으로 볼 때 한국은 팬데믹의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지난 70년간의 역사를 통한 교훈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팬데믹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 정치적 결정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한국의 대응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앞서 말한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나았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한국은 253명인데, 이는 영국 4180명, 미국 8571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블리츠정신을 위기에 대처하는 기본으로 삼았던 영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최근의 역사와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기억한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급격한 발전과 90년대 외환위기를 통해 공동 이익을 위



석달간의 봉쇄령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달 15일 런던의 한 패션쇼터가 문을 열자 쇼파객들이 몰려들었다. /EPA=연합뉴스

해 모두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돼지콜레라 등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부의 빠른 대응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정치적 소속은 잠시 제쳐 두고 정부의 조인에 따른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끝난 후에 해도 된다고 믿는다.

한국 대처, 인권 논란 있지만 효과적

한국은 평정심을 유지하지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지도 않는다. 약간의 혼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후엔 상황에 바로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팬데믹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한국 대처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인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강력한 규제는 혁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의 문화는 빠른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헬조선'이라는 불만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것만큼은 한국이 엄청난 강점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한국이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빠른 대응과 봉쇄 및 확진자 동선 추적 덕분에 크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따르는 한국의 문화도 분명 한몫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부의 조인을 믿고 따르며, 다소 인권침해로 느껴질 수 있는 동선 추적도 수용했다. 현재 느끼는 약간의

고통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영국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영국에는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면 어떤 나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남아 있고, 정부에서 이런 생각들을 장려하기도 한다. 더불어 이런 태도로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이 코로나19로 죽어 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Keep calm and carry on'은 팬데믹을 이겨 내는데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평정심보다 두려움이, 그리고 과감하고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그게 바로 팬데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기사입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문구가 들어간 깃발.



영국 기념품가게에 진열된 'Keep Calm and Carry On' 문구. (사진 김 불리)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INNOVATION AWARDS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